

법무부, 출입국·이민 분야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면담

-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등 편리한 출입국·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-

법무부 차용호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30일(수) 자말 알 수와이디(Jamal Abdulla Al Suwaidi)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와 만나, 양국 간 출입국·이민 정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‘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(Smart Entry Service)’와 아랍에미리트의 ‘스마트 게이트(Smart Gates)’ 등 양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, 입국장에서 여권 제시 없이 편리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“양국의 출입국·이민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여,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”고 제안하였습니다.

알 수와이디 대사 역시 “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”고 화답하였습니다.

아울러 양측은 양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·체류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자 규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·홍보하여,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출입국·체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.

※ 한국 → UAE 방문자 수 : 124,262명 / UAE → 한국 방문자 수 : 4,748명 (26. 8월 기준)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한 외교공관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	책임자	과 장	유성오	(02-2110-4010)
	출입국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김은호	(02-2110-4014)